

편집인으로서의 경험 (전문의학 학술지)

대한내과학회 간행이사 조 경삼

대한내과학회 학술지

대한내과학회는 국문과 영문 두가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국문학술지의 지명은 대한내과학회지(Korean Journal of Medicine)로 매월 발간하고 년 2권 12호와 Supplement(년 2-4호)로 발간되어 최근호는 53권 12호(1997년 12월)다. 영문학술지의 지명은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으로 년 2회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12권 2호가 발간되어 있고 1995년에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다.

내과학회지의 내용과 투고규정

내과학회지는 심사에서 통과된 원저와 증례를 주로 게재하고 종설과 논평은 원고 청탁에 의해 게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은 청탁된 원고가 없었다. 춘추계학회에 발표된 symposium, 특별강연 구연초록은 Supplement로 발간하고 있다.

내과학회지의 투고규정에 있어서 다른학회와의 특별한 차이는 없으며 투고자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없다. 과거에는 내과전문의 수련규정에 내과학회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7년부터 삭제되었다.

내과학회지 간행(심사)위원회와 심사과정

내과학회지의 간행위원회에는 간행이사(위원장) 외에 9개 내과분과에 따라 각 분과 별로 1 내지 2명의 간행위원(심사위원)을 두고 있으며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간행이사가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구성한다. 현재의 간행위원은 1995년 11월에 임명되었고 1998년 10월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투고된 논문은 분야 별로 간행이사가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사양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이나 외부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간행위원회는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모임을 가지며 심사한 논문을 심사위원과 위원장이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간행위원회에서는 잡지 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의결한다.

투고된 논문은 <심사완료, 현상태로 게재가>, <심사완료, 간행위원 수정후 게재>

제가>, <심사완료, 게재불가>, <저자수정후 재심사>의 4가지로 결정된다. 저자수정후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과 함께 저자에게 반송되고 저자의 회신에 따라 재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의견과 저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게재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에도 저자에게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이나 외부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영문잡지의 경우에도 같은 과정을 거치며 단지 통과된 논문은 외국인에 의해 영문 교정을 받은후에 게재되며 그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논문심사 결과 (표 1)

최근 3년간 분기별 심사결과를 보면 1997년부터 그 이전에 비해 투고논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7년부터 전문의자격시험에 내과학회잡지에 필수적으로 한편을 게재해야 된다는 수련규정이 변경된 탓으로 생각된다. 원저와 증례의 비율은 55 : 45로 증례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심사에 통과된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이며 원저는 85%, 증례는 70% 정도로 증례의 경우 심사통과가 적다. 투고된 논문이 1차심사에서 통과되는 경우는 약 30% 정도이며 3차이상의 심사를 받은 논문은 통과논문의 10% 정도다.

내과학회에서는 1995년 대한내과학회지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시도'로 홍창기 교수에 의해 대한내과학회지의 비교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숙제보고로 발표되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1981년에는 128편중 107편(84%), 1987년에는 260편중 219편(84%), 1994년에는 312편중 257편(82%)이 심사후 통과되었다.

1995년 3/4분기까지의 통과율과 1차심사에서의 통과율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1995년 4/4분기부터 새로운 간행위원회에 의해서 심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통과된 논문의 게재시기를 보면 1994년 9월호에서는 원저, 증례 모두 통과후 대략 6 내지 7개월후였으나 1995년 9월호에서는 10개월, 1996년에는 15개월, 1997년에 들어서서는 18개월까지 게재가 지연되는 정도에 달했다. 내과학회에서는 1997년 Supplement 2호를 추가 발간하여 적체 논문을 어느정도 해결하여 현재는 8개월 이내에 게재되고 있다.

내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시상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분기별로 5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우수논문의 선정은 게재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분야 별로 심사위원이 2편씩을 추천하고 이중에서 5편을 선정하여 상장과 한편당 10만원의 부상을 지급한다. 둘째, 연간 선정된 우수논문 20편 중

에서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3편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을 시상하며 부상으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대한내과학회지의 문제점

간행위원회

내과학회의 간행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간행위원은 간행이사가 임명한다. 자격에 있어서 특정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논문심사의 경험 유무가 고려될 뿐이다. 간행위원을 위한 특정 교육프로그램은 없으며 위원장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논문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심사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주로 의존한다. 향후 간행위원들의 심사방침에 대한 workshop이나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논문심사와 게재

확정적인 논문심사지침이 없는 점과 논문심사를 위한 보조(심사료)가 적은 것이 문제점이며 특히 과거에는 논문게재가 수련의의 전문의시험자격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과다한 논문 투고에 의해, 통과된후 잡지에 게재되는 시기가 지연되어 원저로서의 가치를 잃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수련규정의 개정으로 투고논문이 감소하고 있어 이점에서는 해결의 한 방안이 생겼으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심사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1995년 발표된 홍창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내과학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고의 심사방침, 즉 편집정책에서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적인 발전은 이루면서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없었다. 심사규정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검토항목이 연구구조의 검토항목보다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가지 지적된 문제점은 공동저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연구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공동저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과학회잡지의 앞으로의 방향

의학의 발달과 전문화로 내과학회도 현재는 분과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분과학회가 발족되었고 분과학회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 내과학회 학술지의 방향도 이런 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학술지는 영문 및 국문학술지 모두가 전문학술지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국문학술지는 양적으로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질적으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다. 영문학술지는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으나 연간 2회의 발간에 불과하다. 국문으로 투고된 논문중에서 별도 선정하여 영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겠다.

현재 내과학회회원의 많은 수가 임상만을 전문으로하는 중소병원에 봉직하고 있는데 이들을 고려한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하는 학술지의 형태로 국문학술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표 1. 최근 3년간 분기별 내과학회지의 심사 결과
원저

년도	분기	편수	1차심사 통과	2차심사 통과	3차이상 통과	불가	미재접수	심사중
1995	1/4	55	24	21	6	4		
	2/4	49	21	21	1	2	4	
	3/4	52	23	16	7	2	4	
	4/4	36	7	18	3	5	3	
1996	1/4	57	12	22	10	6	7	
	2/4	53	19	20	4	2	8	
	3/4	35	8	15	5	4	3	
	4/4	26	4	14	2	3	3	
1997	1/4	37	8	15	4	5	3	2
	2/4	29	6	14	1	3	1	4
	3/4	20	7	5		4	2	2
	4/4	11	2				1	8
합계		408	129	181	43	40	39	16

증례

년도	분기	편수	1차심사 통과	2차심사 통과	3차이상 통과	불가	미재접수	심사중
1995	1/4	44	16	16	2	7	3	
	2/4	36	8	14	1	10	3	
	3/4	33	11	6	2	13	1	
	4/4	21	5	11		4	1	
1996	1/4	36	10	15	5	6		
	2/4	27	4	15	5	2	1	
	3/4	44	10	21	1	11	1	
	4/4	19	4	4	1	8	2	
1997	1/4	23	4	8	2	7	2	
	2/4	26	5	8		10	3	
	3/4	14	4	3		6		1
	4/4	11	3			2		6
합계		334	84	121	19	86	17	7

영문잡지

년도	분기	편수	1차심사 통과	2차심사 통과	3차이상 통과	불가	미재접수	심사중
1995	1/4	11	5	4	1	1		
	2/4	6	3	2	1			
	3/4	10	7	2			1	
	4/4	13	4	7	1		1	
1996	1/4	16	5	7	1	1	2	
	2/4	9	3	6				
	3/4	14	3	6	3		2	
	4/4	9	4	4	1			
1997	1/4	7		5		1	1	
	2/4	9	2	1		2	4	
	3/4	7		3			3	1
	4/4	11	1			1	1	8
합계		122	37	47	8	6	15	9

참조

1. 홍창기: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시도: 대한내과학회지의 비교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 대한내과학회지 47권 Suppl. II pp 6 - 22, 1995
2. 대한내과학회: 학회지발간사업. 대한내과학회50년사 pp 287-332, 1996